

지자체 사이버문화관 '볼만'

'경주넷' '빛고을광주' '경기넷' 등 홈페이지 40여개 사찰-불교문화재등 지역 유물·유적 상세히 소개

전국의 도청과 시청 등 지자체들이 앞장서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에 문화관을 속속 마련, 지역 문화 행사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불교문화재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불교문화 홍보에 힘써 역할을 맡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후원과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이버문화관은 모두 40여곳,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홈페이지들인 경주넷, 대구시청, 빛고을광주, 대전시청, 속초시청, 수원시, 경기넷, 경남, 구미지역정보센터, 경북 국제관광정보망, 부산시, 전남도청 등은 지역 문화 소개에 충실한 사이트들이며, 춘천시청에서 운영하는 춘천시 인터넷과 거창지역정보센터 등은 알찬

내용으로 특히 눈에 띄는 사이트. 춘천시 인터넷에서는 만화축제알리기, 춘천의 명소, 문화행사 등과 함께 춘천의 명소 코너로 청평사 회전문(보물 164호), 근화동 당간지주(보물 76호), 칠층석탑(보물 77호) 등의 위치, 연혁소개 등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다. 거창넷에는 거창지역 사찰인 금봉암 연수사 고전사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재미 골 가섭사지의 바위전설이 보는 이의 재미를 더한다.

문화재의 보고 경주를 소개하는 경주넷은 '서라벌 나드리' 코너를 통해 석굴암, 마동사지 3층석탑, 원원사지를 도는 불국사리과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남산입국석불두

등 남산권 순례, 석탑 순례 등이 네티즌을 사로잡는다. 10일 끝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불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구시청의 홈페이지에서는 팔공산에 위치한 파계사, 동화사, 부인사 등의 사찰을 소개한다. 광주시청의 빛고을광주는 사찰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중심사, 원효사, 약사사 등을 사진과 함께 올리고 있다. 대전시청은 고산사, 보문산마애여래좌상, 중앙사 부도, 봉소사 석조보살입상 등의 유물 유적을 관광안내 코너에서 선보인다.

이밖에 충청도는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 외에 제공하는 '사이버 백제 역사문화관'을 구축해 2000년부터

◇사이버문화관 개설 사이트

사이트	주소
사이버문화관 홈페이지	www.mct.go.kr:7000
한국문화공간통합안내시스템	www.mct.go.kr/s_space_h.html
춘천City Net	culture.chuchon.kangwon.kr
거창지역정보센터(거창넷)	www.keochang.kangwonam.kr
경주인터넷정보센터(경주넷)	www.kyongju.co.kr
경기넷	provin.kyonggi.kr
대구시청	www.metro.taegu.kr
대전시청	www.metro.taejon.kr
빛고을광주	www.metro.kwangju.kr
속초시청	www.city.sokcho.kangwon.kr
수원시	city.suwon.kyonggi.kr/main.htm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provin.kyongnam.kr
구미지역정보센터, 구미교차로	www.cyber2000.co.kr
경상북도 국제관광정보망	www.kyongbuktour.or.kr
부산시	www.metro.pusan.kr
전남도청	www.provin.chonnam.kr
한국전통문화본부 홈페이지	www.ktdc.co.kr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은 16억 원을 들여 내년말까지 백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멀티미디어 기법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 정보시스템 개발을 마무리짓는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물과 유물 유적지 소개도 종교 등을 시기별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불심시심 (150)

좋은 친구 반은 새와 고기

雲蹤到此愛幽居 (운종도차애유거)
邱壑情緣笑未除 (구학정연소미제)
細月娟娟新露夕 (세월연연신제석)
斜陽晚晚漁煙曉 (사양염염담연초)
安食蓮士難能致 (안식연사난능치)
高僧明時易見疎 (고승명시이견소)
江近林深人跡少 (강근림심인적소)
此中友樂半禽魚 (차중우락반금어)

구름자취 여기 와서 그윽한 거처 사랑해
정으로 인연된 산천 웃어도 못 떨쳐
가는 달도 아른아른 새로 개인 저녁
지는 별 곱게 곱게 맑은 연기 옛 터전
가난에 통달한 선비 누가 이를 수 있나
맑음을 숭상할 때는 소외되기 쉬운 것을
강 가까이 숲도 깊어 인적 드르니
이런 때 좋은 친구 반은 새와 물고기.

초의선사가 두문시사에서 지은 시이다. 스님의 발취취야 원래가 구름 물의 자취라 하여 세사에 얽매지 않음이 본분이니, 구름 자취라는 운종은 선 사로서의 지당함이다. 그러나 여기 이르렀다는 여기가 어디일까. 지금 세속의 선비들이 모인 이 시회이다. 정으로 이끌린 산천이다. 이러한 반연을 끊어 야할 처지에 정애 이끌림이 되었으니 그저 웃을 수밖에. 여기에 범연히 넘어갈 수 없는 경치. 가는 초승달의 고을. 그것도 비가 개인 초저녁이다. 아직 석양의 뒤물이 가시지 않은 노을 긴 폐허에서다. 여기는 세속과 그리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비들과 사회를 위하여 모인 자리이다. 주변의 경관이 이런 흥을 돋우기에는 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초야에서 향시 경안히 지낼 수 있다면 그를 일러 통달한 선비라 할까.

이러한 안빈의 통달한 선비란 이루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더구나 세가가 성군의 시대라면 세사에 얽매지 않음이 본분이니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상봉이여서는 소외되기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안빈과 달사라는 상반된 길을 중도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어려움을 조용히 초극하는 것이 산중 생활이다. 그러기에 절집이 아무리 마을에 가까워도 강을 끼어 거리를 두든지 대숲이라도 가려 닭 개의 울음을 막은 것인지도 모른다. 강 가깝고 숲이 깊으니 자연 인적이 드물고, 인적이 드물니 친구들은 자연의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한다. 즐거움의 반은 산애와 물고기의 몫이라는 이 선사의 생활은 그 자체로서 선 수행을 마친 느낌이다. 물고기로써야 내 즐거움은 내 것인가 하겠는가.

이중찬 (동국대 명예교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외화내빈 행사였다

310만명 관람 '그나마 성과'

"여러가지 많이 보았지만 기억에 남는게 별로 없어요."
9월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달동안 경주에서 열린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의 소감이다. 세계 최초의 문화박람회라는 점에서 국내 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총 3백1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동원함으로써 일단 성공적이지만 이번 행사의 주제인 '새천년의 미소'를 발경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불교계로서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다.

경주는 신라불교의 향기를 가득 품고 있는 천년고도로, 이번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게 한껏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오페라 '원호'가 법향 그윽한 불국사에서 공연돼 큰 감동을 준 외에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깊이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했다. 이것은 엑스포 조직위에서 지나치게 탈중교성을 강조한 점도 있지만 불교계에서도 말로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화장 세계를 꿈꾸며'

백양사에서 인명스님·이영섭씨 2인전

인명스님과 조각가 이영섭씨의 2인전 '연화장 세계를 꿈꾸며'가 12월 6일까지 장성 백양사 고불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인명스님은 '蓮' 등 수묵담채 동양화 25점, 이영섭씨는 '보리수' 등 테라코타 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인명스님은 4차례의 개인전을 비롯 여러차례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고 이영섭씨는 국제교교예술제, 새로운 전망전 등 다수의 조각전시회로 주목받는 작가이다. (0685)392-7502



◇이영섭작 '보리수'.

홍석화씨 해우소사진전

서울·의정부·이천·안성·수원 등 순회

사찰의 해우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홍석화씨가 홍석화씨(한국토종연구회 부회장)의 해우소 사진전이 서울·의정부·이천·안성·수원 등에서 잇따라 열린다. 안벽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순천 선암사(사진)를 그린 홍석화씨 문경 김용사 등 요사이 사찰에서 보기힘든 사찰 해우소를 비롯, 농가의 갯간소 등 환경친화적인 한국의 옛 뒷간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전시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1.17~23. 인사동 나 갤러리 △11.24~27. 의정부 청소년회관 △12. 7~12. 이천 한국전력 한빛정신장 △12.13~16. 안성문화회관 △12.17~23. 안성 고삼농협 △12.24~31. 수원 경기도농예회관.



◇순천 선암사(사진)를 그린 홍석화씨 문경 김용사 등 요사이 사찰에서 보기힘든 사찰 해우소를 비롯, 농가의 갯간소 등 환경친화적인 한국의 옛 뒷간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광주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합창단 소년가장들기 '성황'

광주시민회관 강당에서 지역스님 30여명과 불자대중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합창단은 '공심공체 돌아온 노래' '주인공이 무엇일까' '비오는 오솔길' 등 찬불가와 풍요, 외국가곡 등 16곡을 합창했으며 청년회 찬양단과 거사합창단이 찬조로 출연하여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번 합창제에서는 1천 2백만원이 모금됐으며 수익금 전액은 11월말 한마음선원 광주지역에서 준비한 강장 4천포기와 함께 광주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액 전달된다.



◇7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어린이불교합창제.

문화 단신

어린이즐거움 입학작 발표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가 주관하고 한국불교아동문화회(회장 신현복)가 주최하는 제17회 전국불교어린이즐거움 작품공모에서 운문부문 우수상에는 △저학년= '우리 부처님' (조각품 서울 서정초등3), 산문부문 우수상에는 △저학년= '어머니와 약사여래불' (윤슬지 서울 은석초등2) '복받은 어린이' (안모젤) 등 황토표준으로 제작한 등공님 작품 20여점과 구산 석주승한 스님들 고승대덕들의 글씨 10점, 장석원 강철수 씨 등의 유희말 평화 1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선다현 대표 등공님상은 앞으로 다도, 경전강의, 관화 등의 문화강좌를 비롯 시낭송회와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선다현을 지역문화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보신문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의 조계사 정진법회에 부쳐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원들의 조계사 정진법회가 '법보신문 사태' 해결의 기점이 될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삼배의 예를 올리며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법보신문 전 직원에 대한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의 일괄사표 요구로 시작된 '법보신문 사태'가 석달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기협회'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법보신문 사태'는 지난 7월 불국사에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법보신문 운영진에 대한 폭력적 탄압 때문의 '불교언론 탄압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은 손상된 불교언론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대응에 나섰으나,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보여준 모습은 부당·차장들에 대한 해고예고 등보와 출근금지 통보에 이어 또다시 평가자들에 대한 면직과 무기정직 등 중징계를 단행하여 사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전에 서원하건대 '법보신문 사태'의 책임과 그 해결의 열쇠는 전적으로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기간 분단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은 냉전시대를 거쳐 이제 민주와 개방의 시대로 진입해 그 어느때보다도 정의와 인권이 신장되는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로 반세기만의 수평적인 정권교체로 사회 각 분야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개혁이 진행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사부대중이 하나가 되어 불교와 불교언론 발전의 지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건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반개혁적 사태가 법보신문에서 저행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간의 '법보신문 사태'를 바라보건대,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밝힌 '재정착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명분은 이미 빛을 바랜지 오래입니다.

편집국 부장과 차장을 해고예고한 후 국장과 부장·차장을 새로 영입한 일, 사무실이 좁다며 더 넓은 공간을 계약하려 했던 일 등은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당초 밝힌 '재정착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이유가 그저 직원 불만을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단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제(인제)양성을 외치면서도 단순히 스님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수개년에서 10여년 이상 동안 불교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해 온 전문 불교언론인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몰아내는 일은 차마 자비문중의 스님들로서 해서는 안되는 서글픈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불교계가 벗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가 우리를 더욱 회의에 젖게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보신문 사태'는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자비심과 성의만 보여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제,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원들이 원만한 사태해결을 발원하며 조계사에서 매일 정진법회를 병행하고 있는 만큼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은 스님으로서의 자비심과 성실한 자세로 사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법보신문사 노동조합과 협심탄회하게 마주한다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초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이 요구했던 편집부장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표를 낸 지 지금에 이르러 어떠한 명분으로도 선별처리가 아닌 해고예고자와 중징계자 전원에게 대한 원직복귀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길을 걷는 사문으로서 자비문중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법보신문사 편집국 직원들이 3개월이 넘도록 고군분투하며 기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은 채 복직에 대한 희망 속에서 피나는 정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법보신문사 편집국 기자들의 이같은 뜻깊은 자세는 전문 불교 기자로서, 또한 불자로서의 깊은 신심과 불교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의 발로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보신문의 정상화를 위한 법보신문사 노동조합원들의 조계사 정진법회가 2천만 불자와 함께 거행되는 불교언론의 내일을 기약하는 화합의 장으로 회향되기를 기원하면서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은 사태해결을 위한 법보신문 직원들의 대화노력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불국사 운영진 스님들은 선별처리가 아닌 해고예고자 전원 원직복귀와 중징계 해제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신문정상화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법보신문 정상화를 위해 복직의 희망을 잃지 않는 편집국 기자들의 정당한 분투에 우리도 뜻을 같이 할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 법보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